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

▶ 6회 예고
다르마가 이발소에서 청소하는 것을 본 빵갈로바뜨사는 잔뜩 화가 나서 왕비를 찾아가 항의한다. 왕비는 빈두사라왕의 미움을 받을까봐 마지못해 심복인 이발사 여인을 불러 다르마에게 바로 이발을 바로 가르치도록 지시한다.



이발소에서의 수난

왕실 이발소는 궁중 정원 안의 별채 회랑 끝에 있었다. 옆에는 왕실 목욕탕도 있었다. 왕족들만 이용하는지 별채 출입구에는 보초병사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눈을 희번덕거렸다. 회랑 안쪽 창고에는 전단향나무 장작과 뿌리가 한가득 쌓여 있었다. 장작은 물을 데울 때 군불로 사용하고, 뿌리는 가루로 만들어 전단향나무 향기를 내기 위해 세숫물과 목욕물에 뿌렸다. 보초병사는 궁녀를 보자마자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다.

이발소 안에는 서너 명의 수드라 여인들이 이발을 하는 우두머리 이발사 여인을 거들고 있었다. 청동거울에 비친 사람이 다르마를 보기 위해 슬쩍 고개를 돌렸다. 왕족인 듯 위엄이 있어 보였다. 큰 눈과 코, 입이 위풍당당했다. 이발사 여인이 왕족의 이발을 끝낸 듯 마지막으로 빗을 들고 머리를 다듬고 있었다. 왕족이 의자에서 내려올 때까지 궁녀는 이발사 여인에게 다르마를 소개하지 못했다.

다르마는 이발소 안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15번째 왕비의 심복인 이발사는 다르마에게 눈도 주지 않았고 잡일을 하는 수드라 여인들은 슬쩍슬쩍 다르마를 보았다. 이윽고 왕족이 자신의 팔을 붙들고 안마를 하던 수드라 여인을 뿌리치고 의자에서 내려왔다. 왕족이 궁녀에게 물었다.

"여기서 일할 수드라인가?"

궁녀가 왕족에게 다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브라흐민입니다. 왕비가 될 여인인데 막내왕비님께서 이리 보냈습니다."

"브라흐민이 이발소에서 일한다고! 더구나 왕비가 될 여인이?"

왕족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수드라 여인들이 놀랐다. 그러나 이발사 여인은 별 일이 아니라는 듯 묘한 표정을 지었다. 왕족이 혀를 차며 한 마디 툭 던졌다.

"쯧쯧. 행운의 여신이 질투를 하고 있군!"

왕족이 이발소를 나가자 이발사 여인이 말했다.

"이발을 배우려면 허드렛일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럴게요."

이발사 여인 역시도 신분은 수드라였고 얼굴은 숯덩이처럼 유난히 검었다. 그녀뿐만 아니라 이발소에서 안마 등 잡일을 하는 여인들 모두 검게 번들거리는 얼굴이었다. 그래서인지 다르마의 얼굴은 흙탕물에 하얀 연꽃이 피어난 듯 도드라졌다.

"오늘부터 이발소 안의 청소부터 하세요."

"빗자루는 어디 있는가요?"

"동료들에게 물어 보세요. 난 한가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왕비가 될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지 반말은 하지 않았지만 태도는 거만했다. 잡일을 하는 가장 앳되게 보이는 수드라 소녀가 다르마에게 말했다.

"적응하면 좋아질 거예요. 여기 오면 비질청소와 수건빨래부터 한답니다."

수드라 소녀가 이발사 여인의 눈치를 흘끗흘끗 보면서 친절하게 말했다. 다르마는 수드라 여인들이 왠지 무서웠지만 가장 앳된 수드라 소녀의 말을 듣고는 다소 안심했다. 이발사 여인이 또 다시 퉁명스럽게 말했다.

"방금 왕족이 흘린 머리카락은 누가 쓸어야 하나요?"

다르마가 당황하자, 어린 수드라 소녀가 빗자루를 얼른 다르마에게 주었다. 그제야 다르마는 의자 옆에 뭉툭뭉툭 떨어진 왕족의 머리카락을 쓸었다. 긴장한 탓에 비질을 빨리하자 먼지가 일었다. 이발사 여인이 또 타박을 했다.

"물을 먼저 뿌리고 쓸어야죠. 누구더러 먼지를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질부터 빨리 하라고 하시니..."

이발사 여인이 대꾸하는 다르마를 잠시 노려보다가는 야릇한 미소를 흘리며 이발소를 나가버렸다. 잡일을 하는 수드라 여인들이 다르마에게 다가와 위로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신고식 치고는 부드러운 거예요."

잠시 휴식하는 시간인 듯 수드라 여인들이 우르르 나갔다. 다르마는 소리 나게 한숨을 쉬었다. 수드라 소녀와 둘만 남았다.

"모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발사 언니가 나가니 덩달아 나간 거죠."

"함께 나가서 쉬지 그래요."

"청소를 더 해야 하는 걸요.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발견되면 벌을 선답니다."

다르마가 비질을 시작하려 하자, 수드라 소녀가 빗자루를 빼앗다시피 했다.

"왕비님 되실 분이니 천한 일은 하지 마셔요."

"짬빠성 집에 있을 때 청소를 많이 해봤어요."

"집안청소야 천한 일이 아니지요. 집안이 깨끗해지니 기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일은 수드라들이나 하는 천한 일이에요."

"남의 이발을 멋지게 해주는 일이니 천한 일이 아니에요. 남을 위하는 일이면 다 공덕을 쌓는 일이지요. 그러니 정성껏 해야 돼요."

"아름다운 락슈미 여신 같은 분! 저는 오늘부터 시종이 될래요."

다르마는 자신을 락슈미라고 부르는 수드라 소녀를 한 번 더 쳐다보았다. 다르마가 보기에는 수드라 소녀가 연꽃에 앉은 락슈미로 보였다. 비슈누의 배우자인 락슈미는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풍요의 여신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행운이 찾아오면 '락슈미가 그와 함께 있다.' 고 말하고 반대로 불행해지면 '락슈미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고 말했다.



그날 밤 다르마는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창고 같은 방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역하게 났고, 도마뱀이 천정에서 떨어지곤 했다. 락슈미 여신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아서 울컥 눈물이 나려고도 했다. 그러나 다르마는 아버지와 한 약속을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웅크린 채 누워서 눈을 감고 있으면 짬빠성의 망고나무 동산과 성 밖의 에메랄드빛 호수가 떠올랐다. 짬빠까나무 숲이 감싼 고요한 호수에는 날갯죽지가 유난히 긴 흰 새가 너울너울 날았다.

'아, 내가 새라면 짬빠성 엄마에게 내 처지를 전할 수도 있을 텐데.'

다르마는 쪽잠을 자다가도 순찰 도는 병사의 발자국 소리에 눈을 떴다. 창문을 따고 들어올 것만 같아서였다. 그러다가도 자박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면 다시 눈을 감았다. 잠은 멀찌감치 달아났지만 억지로 눈은 감고 있었다. 다르마가 눈을 떴을 때는 문틈으로 햇빛이 스며들어왔다. 새벽이 강가강 너머로 물러갈 무렵에 깜빡 쪽잠을 잔 모양이었다. 이발소 어린 수드라 소녀가 잠을 깨웠다.

"왕비님, 일어나셔요."

마치 시종이 된 양 수드라 소녀가 문 밖에서 소리쳤다. 다르마는 헝클어진 머리를 주섬주섬 매만진 뒤 문을 열고 나갔다.

"오, 락슈미띳사여. 늦잠을 자버렸네요."

다르마는 수드라 소녀에게 아직 이름이 없었으므로 락슈미처럼 아름답고 몸이 사탕수수대처럼 말랐다고 해서 띳사라고 불렀다. 락슈미띳사가 말했다.

"수드라들이 아침을 먹는 식당이 있어요. 얼른 가서 먹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굶어야 해요."

"난 밥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먹어야 해요. 그래야 견디니까요."

왕비가 될 사람이 이발소에서 일한다는 입담거리가 벌써 궁 안에 돈 듯했다. 공동식당으로 가보니 궁녀와 수드라들이 다르마가 구경거리라도 된 듯 쳐다보았다. 수드라들은 아침식사를 바닥에 앉아서 먹었다. 다르마는 따뜻한 짜빠티를 한 조각 먹는 둥 마는 둥했다. 락슈미띳사가 가져온 짜이를 한 잔 하고는 일어섰다.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 더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비로소 다르마는 자신이 전혀 다른 세상에 온 사실을 절감했다. 다르마는 이발소가 있는 곳으로 가다가 강가강이 보이는 정원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강가강은 빠딸리뿌뜨라 외성 밖으로 포근하게 흐르고 있었다. 고향인 짬빠성으로 흘러가는 강가강이었다. 강가강을 보자 다르마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다르마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엄마가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발소에서 머리카락이나 쓸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빵갈로바뜨사 구루를 얼마나 원망하실까?'

락슈미띳사가 다르마 옆에 앉았다.

"왕비님, 저도 울적하면 강가강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 강가강이 저를 위로해 주어요. 강가강은 저의 엄마 같아요."

"엄마는 외성에 사는가요?"

"저는 엄마를 몰라요. 갓난아기 때 길에 버려졌으니까요. 외성에 양부가 살고 있죠.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궁중 이발소에서 일하게 돼서요."

멀리 보이는 강가강이 락슈미띳사에게 화답하듯 햇살에 반짝였다. 강가강은 다르마도 위로해 줄 것처럼 자애롭게 보였다. 아침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몸을 담그고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기도했던 강가강이었다. 그러니 강가강은 다르마에게도 부모나 다름없었다.

"락슈미띳사여, 일어나야겠어. 늦으면 혼날 테니까."

"이발사 언니가 거만한 것은 빠빠왕비님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빠빠왕비님?"

"대왕님의 막내왕비님이죠. 젊고 아름답지만 성질이 못됐어요."

다르마는 락슈미띳사와 이야기하는 동안만큼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궁중 이발소에 갇히어 절망하면서 살 뻔했는데 락슈미띳사를 만난 사실이 그나마 행운이었다.

"오늘은 왕자님들이 이발하는 날이에요."

"날이 정해졌군요."

"네, 순서가 있어요. 대왕님, 왕족님, 왕자님 순이에요. 왕자님이 오실 때는 빵갈로빠뜨사 구루님도 함께 오실 때가 있답니다."

락슈미띳사는 이발소로 먼저 들어갔다.

"언니들이 왕비님에게 친절하다고 저를 나무랄 수 있으니 그래요."

락슈미띳사는 영민해서 눈치도 빨랐다. 가능하면 다르마를 편하게 해주려고 움직였다. 이발소에는 벌써 어린 왕자 한 명이 이발을 하고 있었다. 우두머리 이발사 여인이 가위질을 능숙하게 하고 있는 중이었다. 왕자의 머리를 다듬는 가위질 소리가 사각사각 이발소 안에 나직이 울려 퍼졌다. 수드라 여인들이 세숫물에 전단향나무 뿌리로 만든 가루를 뿌리고, 또 다른 여인은 왕자 옆에 서서 안마를 하려고 준비했다. 다르마는 얼른 빗자루를 들고 왕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갔다. 이발사 여인이 지시하기 전에 왕자의 머리카락을 쓸려고 했다. 락슈미띳사가 눈을 찡긋하며 응원했다.

오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오후 늦게 빵갈로바뜨사가 어린 왕자를 데리고 이발소에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는 돌변했다. 빵갈로바뜨사는 다르마가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몹시 당황했다.

"다르마여, 이발을 배우러 왔지 청소하러 온 것이 아니라오."

"구루시여, 이발을 배우려면 누구나 잡일부터 해야 한답니다."

"이발소에서 먼지나 쓸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왕비가 되실 분이!"

잡일을 하던 수드라 여인들이 모두 놀라 벌을 서듯 빵갈로바뜨사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발사 여인도 마지못해 빵갈로바뜨사 앞으로 와서 합장했다.

"왕비님에게 가서 항의해야겠소."

빵갈로바뜨사가 화가 난 채 이발소를 나가버렸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어린 왕자가 철없이 의자에 앉았다가 벌떡 뛰더니 엉덩방아를 찧었다. 다른 수드라 여인들과 달리 이발사 여인은 아무 일 없는 듯 어린 왕자의 머리를 가위질하기 시작했다. 빵갈로바뜨사의 노기를 무시하는 태도였다. 락슈미띳사는 혼잣말로 "빠빠왕비님을 믿고 저러는 거겠지." 하고 중얼거렸다. 다르마는 좀 전의 일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비질을 했다. 어린 왕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담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계속〉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